심층면접을 통한 다문화가족의 레질리언스에 관한 연구*

Analysis of Resilience Factors in Multi-Cultural Families Using Depth Interviews

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
교 수 장 진 경
성신여자대학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박사과정 전 종 미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석 사 신 유 경

Department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 Jin-Kyung Chang
Department of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 Sungshin Women's University
Doctoral student : Jong-Mi Jun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Master : Yoo-Kyung Shin

◀목 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silience factors of multi-cultural families using depth interviews. Thirty-one multi-cultural families(totaling 98 individuals) were interviewed on a range of issues, including the process of marriage, the attitude of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relations, social networks, the process of social adaptation, and their needs for specific social services. The resilience theory was used to categorize resilience factors, multi-cultural families. Analysis of results from depth interviews identified three broad resilience factors. The first was related to for belief systems which included 'family's common goal', The second was related to family functioning systems which included 'family cohesion', 'family adaptability', and 'satisfaction for role-expectation'. The third was related to social networking which included 'satisfaction from social activities'. These resilience factors helped multi-cultural families cope with stressful events and risk situations related to every day life. Results from this study imply that multi-cultural families

Corresponding Author : Jin-Kyung Chang, Department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oonhun-geuan 108ho, Sookmyung Women's University Chungpa-Dong 2-Ka, Yongsan-Ku, Seoul, 140-742, Korea Tel: +82-2-710-9805 Fax: +82-2-803-7746 E-mail: jinkyung@sookmyung.ac.kr

* 본 연구는 2007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KRF-2007-327-B00592).

possess the abilities to lead a meaningful and healthy life-style regardless of obstacles such as communication difficulties, cultural differences, and societal stigma.

주제어(Key Words) : 다문화가족(multi-cultural family), 레질리언스요소(resilience factors), 심층면접(depth interview)

Ⅰ. 서 론

오늘날 지구촌은 사회 · 경제적 이유로 국가를 초월한 인구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구이동의 한 방법으로서 국제결혼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이란 1990년대 이전까지 매우 드문 현상이었으며, 그 대상은 주로 여성으로 한정되었다. 한국에서의 국제결혼은 한국전쟁 이후 미군남성들과 한국여성들 사이의 결혼으로 시작되었다(안혜옥, 2006). 1990년을 기준으로 한국에서 국제결혼이 급증하게 되었고, 1992년 한 · 중 수교 이후, 한국은 결혼시장에서 소외된 농촌 총각의 결혼을 위해 국가가 중국 동포 및 한족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면서 국제결혼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즉 한국남성과 아시아 여러 나라 여성의 결혼으로 외국인 아내가 한국에서 사는 현상이 급증하게 되었다(경상북도 여성정책 개발원, 2006). 이는 한국사회가 다문화 사회를 맞이하게 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농촌 노총각'과 '연변처녀'와의 결혼이 국민운동처럼 시작되었던 것이 현재는 도시남성과의 국제결혼으로 확산되면서 농촌이라는 지역적 경계를 벗어나 한국사회의 새로운 결혼형태로 인식되고 있다.

통계청(2008)에 따르면 한국의 국제결혼건수는 1990년 4,710건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07년에는 38,491건으로 약 8배로 증가하였다. 더욱이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 간의 결혼은 1990년 619건에서 2007년 29,140건으로 47배 정도의 증가를 보인 반면, 한국여성과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은 1990년 4,091건에서 2005년 9,351건으로 약2.3배 정도의 비교적 완만한 증가를 보였다. 이는 결혼에 의한 외국 여성의 이주가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의 국적은 중국, 필리핀, 일본이 주를 이루었으나 1990년대 중반이후에는 국적이 더욱 다양화되면서 동남아시아와 러시아까지 국제결혼 대상국이 확대되었다(보건복지부, 2008). 2003년에는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국적을 가진 여성들이 대부분이었으나, 2007년에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국적이 캄보디아, 몽골, 태국, 미국 등 다양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적별 분포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어 왔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그 동안 급격히 증가하던 베트남 여성과의 혼인이 지난해 6611건으로 전년보다 34.7% 줄어든 반면 캄보디아는 1,804건으로 전년(304건)보다 357.9% 급증한 것이다.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실태파악, 자녀교육, 부부갈등, 사회 · 문화적 적응, 다문화가족정책 등의 각 주제별 학문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먼저 다문화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자 실시된 연구(강유진, 1999)에서는 총체적인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자녀실태, 이혼실태 그리고 거시적 흐름 및 유입국 등의 연구가 있었으나 현황만 보여주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 및 교육을 중심으로 언어발달과 언어환경(오성배, 2005; 최연실, 조성경, 2006)으로 인한 어려움, 학교적응의 어려움(안은미, 2007; 홍영숙, 2007), 자아정체감의 혼란(송성진, 2007) 등의 내용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한국사회에서 경험하는 적응상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다문화가족의 부부 적응 및 갈등을 중심으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수행된 연구로는 제한된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금연, 2003;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3)과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이금연, 2003), 남편의 가부장적 태도와 시댁과의 갈등(홍기혜, 2000), 남편과의 사고방식, 습관과 성격의 차이(강유진, 1999; 성지혜, 1996; 이규삼, 1999), 결혼 안에서 남성에게 부과된 역할수행에 대한 불만족(성지혜, 1996; 홍기혜, 2000), 새로운 환경, 남편과 가족의 불신과 비수용(윤영주, 2001) 등이 지적되어 사회적인 이슈로도 크게 다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내 결혼이민자 여성의 사회 · 문화적 적응을 중심으로 연구된 내용은 문화적응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갈등(구차순, 2007; 이정희, 2006; 이혜정, 2007)의 요인을 파악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또한 부계중심의 혈통주의와 가부장제적인 가족의 필요에 의해 결혼이주여성이 가사나 육아와 같은 재생산 노동을 맡게 되면서 결국 통제와 억압의 대상으로 적응하게 된다는 여성주의적 관점의 연구(김은실, 2002), 이주 여성의 삶과 결혼생활 적응에 관한 사례연구(임안나, 2005),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전략(손민규, 2007; 한국여성개발원, 2006)에 관한 연구 등이 수행되었다. 그 외에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그 가족이 경험

하는 갈등과 문제를 파악하여 지원과 보호를 요구하는 연구(고경화, 2006; 권유경, 2007)도 수행되었다.

기존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는 문화적인 차이에 따른 충돌, 결혼이민자 여성의 관점에서 파악된 부부갈등과 학대, 사회적 부적응 및 대안 제시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문제점은 이미 어느 정도의 윤곽이 드러난 상태이다. 한국은 현재 다문화 사회의 격변기를 거쳐 정착기를 향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다문화 가족은 더 이상 정부나 한국 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혜자로서의 관점에서 탈피하여야 할 시기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착기를 맞이한 다문화 가족의 문제점을 파악하는데서 탈피하여 다문화 가족만의 강점을 살펴보고 레질리언스의 구성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 가족이 한국 사회에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적극적인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반 사회환경 구축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레질리언스(Resilience)의 개념

레질리언스는 역경으로부터 다시 일어나 강해지고 자원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것은 위기와 도전에 대한 반응으로 인내하고, 가정하며 성장해 가는 역동적 과정이다(김지영, 2006).

Turner(2001)는 레질리언스란 역경에 직면하여 회복하는 능력이자 안녕의 상태로 기능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계속하려는 능력으로 규정하고, Walsh(1998)는 역경에서 일어나 이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레질리언스의 '특징' 및 '결과'에 초점을 둔 정의이다.

또 다른 학자들은 상당한 역경의 맥락 내에서 이를 해결하려는 긍정적인 적응력을 포함하는 역동적인 과정(Luthar, Cicchetti, & Becker, 2000)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결국 이것은 레질리언스의 '과정'에 초점을 둔 정의이다.

이렇듯 레질리언트한 개인 또는 가족이라 함은 이 두 가지 전제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첫째 능력의 촉발점이 되는 '위기'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과 둘째 위기의 상황에서 좌절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위기를 극복해 내는 '능력'이 함께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김안자, 2006).

레질리언스 연구의 선구자인 Walsh(1998)는 레질리언스의 개념을 '취약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들을 통해 효과적으로 맞서 '잘 견뎌내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단지 상처입거나 곤궁에 처한 상태를 일컫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이를 회복하고 극복한다는 적극성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안자, 2006).

요컨대 레질리언스는 스트레스와 위기, 역경과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를 견디고 스스로 치유하며,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여 이전 기능 수준을 획득함으로써 앞으로 안녕의 상태로 살아가도록 하는 능력이며, 성공적으로 위기와 역경에 적응하는 건강한 특성으로 규정할 수 있다(김지영, 2006).

2. 레질리언스의 관점

가족레질리언스는 가족이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이에 적응되고, 변화에 직면하여 이를 저항하도록 돕는 가족의 특징, 차원, 속성이라 할 수 있다(McCubbin, 1988). 아울러 가족레질리언스는 가족구성원의 위기와 도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안정성과 변화에 대한 균형을 이루기 위한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Walsh & Olson, 1989).

이러한 정의를 토대로 가족레질리언스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Hawley & Dehaan, 1996; 김안자, 2006 재인용).

첫째, 레질리언스는 역경에 직면하였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체계는 가족을 둘러싼 환경과의 조절을 통해 균형 유지를 위한 변화를 시도한다. 따라서 가족레질리언스는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표면화되어 변화를 수행하지만 어려움이 없을 경우에는 잠재되어 있다.

둘째, 레질리언스는 탄성의 특성이 있다. 즉 튀어 오르는 능력 혹은 이전의 역할 상태로 돌아오거나 혹은 위기 이전 수준 이상의 기능을 획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셋째, 레질리언스는 병리적이기보다는 건강성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가족을 결점과 관련되는 요인으로 보기보다는 가족의 건강한 기능에 기여하는 특성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가족레질리언스의 특성들은 고통스러운 상처로부터 치유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게 하며, 완전히 살아가고 결국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Walsh, 양옥경, 김미옥, 최명민 역, 2002) 가족스트레스와 적응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으로 기능하게 된다.

가족레질리언스 개념과 특징을 통하여 가족레질리언스 관점을 살펴보면, 가족스트레스나 위기를 문제로 보기보다 가족체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의 도전으로 이해한다. 즉 역경이나 위기를 도전 받는 가족으로 이해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게 회복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가족의 결점보다는 보완 가능한 강점에 초점을 두어 모든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가족의 역량을 실현해 나가도록 돕도록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강해지게 하고,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 방법으로 위기에 대처하게 한다(Walsh, 양옥경 외 역, 2002).

이렇게 볼 때 가족레질리언스 관점은 현재의 스트레스와 갈등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가족의 문제해결 기술과 미래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초점은 현재 문제의 해결로부터 미래의 문제를 대비하고 예방하는 것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3. 가족레질리언스의 구성요인

가족레질리언스의 요인들은 물질적, 경제적, 정신적 차원의 요소로 구성되며 학자들의 관심에 따라 강조하는 요소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양한 측면으로 제시된다.

레질리언스의 기본적 요소로서 Silliman(1994)은 위임, 의사소통, 응집성, 적응성, 영성, 연결성, 시간공유, 효능성 등을 제시하였고, Barnard(1994)는 부모와 아동 사이의 적합성, 가족의식, 긍정적 수용성, 가정 내 갈등의 최소화, 청소년기 동안의 이혼부재, 아동과 생산적 관계 등을 보고하고 있다.

Cowen과 Hetherington(1991; 이선애, 2004에서 재인용)은 가족기능에 관한 조사에서 가족레질리언스의 기본 요소로 응집력, 유연성, 공개적 의사소통, 문제해결과 신념체계를 제시하며, Singer와 Powers(1993)는 장애 아동 가족에 대한 연구에서 유연한 의미 해석, 균형 잡힌 대처, 유연한 상호의존을 가족레질리언스의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McCubbin, McCubbin과 Tompson(1993)는 가족형태, 가족스키마, 가족자원, 가족기능, 문제해결과 대처, 사회적 지지 등을 제시하고, Walsh(1998)는 가족레질리언스가 신념체계, 조직유형, 그리고 의사소통 과정의 세 가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가족레질리언스 구성요인을 바탕으로 가족의 가치, 공유하는 목표, 영성 등을 포괄하는 신념체계와 가족의 응집성, 적응성, 역할기대 등을 포함하는 가족기능 그리고 사회활동, 자원봉사,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포함하는 사회연계성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의 레질리언스를 파악하고자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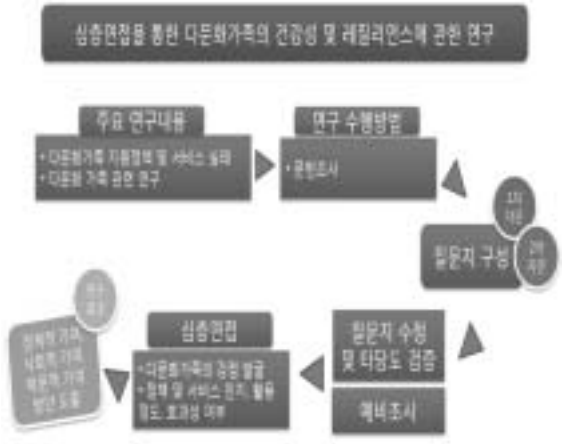
1. 연구대상가족의 선정

본 연구는 연구목적에 적합한 대상가족의 표본추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첫째 한국어로 언어소통이 가능한 자, 둘째 연구 참여의사에 동의한 자, 셋째 확대가족을 포함하거나 자녀가 있는 자, 넷째 연애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결혼지속 연수가 2년 이상인 자, 다섯째 지역 유관기관이 추천한 건강한 가족으로서, 다른 다문화가족에게 모범이 되는 가족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가족형태가 핵가족 중심이지만 확대가족과 끊임없이 소통한다는 특성을 반영하여 확대가족을 포함한 가족체계 전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자는 다문화 가족 즉,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 자녀, 확대가족(시부모, 친인척)등 다문화 가족을 둘러싼 가족체계 전체를 대상으로 총 31가족(9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절차

예비조사는 탐색연구와 더불어 다문화가족 4가구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이루어졌다. 예비조사를 통해 선정된 질문내용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및 결혼이민자사업 관련 현장 종사자로 구성된 자문 위원들에게 2회에 걸쳐 자문을 구하였다. 이를 포함해 총 5회에 걸쳐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수정 · 보완하였다.

심층면접조사는 책임연구원과 현장 경험이 있는 박사과정 및 석사 과정 대학원생 10인으로 구성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교육한 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은 서울, 안산, 부천, 대전, 천안, 충주이었으며, 연구자가 직접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심층면접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절차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흐름도

3.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글교육이나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연

구목적에 부합된 다문화가족 50가구를 추천받은 후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가족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진행되었다.

심층면접은 선행연구고찰과 예비조사를 통해 국제결혼의 과정 · 국제결혼태도 · 가족관계 및 가족생활 · 사회적 관계 및 사회적응과정 · 사회서비스욕구 등이 포함되도록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하고, 이를 수차례 수정 · 보완하는 작업을 통해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초기 전화면접을 실시하고 정확한 면접 일시와 장소를 협의한 후 1차 면접은 라포 형성과 기초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40-50분 내외가 소요되었으며, 2차 면접은 평균적으로 80분이 소요되었다. 그 외에 자료의 보완 및 보충을 위해 재방문, 전화면접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추가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 장소는 센터 내의 상담실 혹은 면접대상자의 집 등 독립된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면접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연구대상자는 총 31가족(93명)이었다. 심층 면접시 각 가족당 구성원 개인별 개방형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다문화가족의 레질리언스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심층면접 결과 분석 시에 미흡한 부분이나 추가 질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후면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법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대상자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반복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충분한 공감과 수용을 통해 신뢰로운 상황이 형성하도록 하였다. 이는 연구대상자들이 그들의 주관적인 관점과 해석을 개방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심층면접을 통한 자료의 수집은 면접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녹음을 하였고, 전사본을 작성하여 연구결과를 분석하였다. 결과 분석시, 각 기관의 추천을 통해 심층면접을 시도한 총 39가족 중 갈등상황이 부정적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거나 각 가족구성원(남편, 아내, 시부모 혹은 자녀)이 지각하는 가족의 위기와 레질리언스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적응하며 두드러지는 갈등과 강점이 발견되지 않는 8가족의 데이터를 제외시켜 총 31가족의 데이터를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가족의 특성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 31가족인 93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하였다. 위의 〈표 1〉과 같이 [박○○가족]은 몽골출신의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연애 결혼하여 5년 동안 결혼생활을 지속했고,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아내의 연령은 27세, 남편은 33세, 외할머니는 71세이다. 학력은 아내가 대학중퇴, 남편은 고졸, 외할머니는 무학이다. 종교는 아내가 기독교이고 남편과 외할머니는 무교이다. 남편은 회사원이고, 가계의 월 소득은 250만원이다. [비○○가족]은 필리핀출신의 여성과 한국인 남성으로 연애 결혼하여 4년 동안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있으며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아내의 연령은 34세, 남편은 46세, 자녀는 9세이다. 학력을 살펴보면, 아내는 대학중퇴, 남편은 중졸, 자녀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이 가족의 종교는 모두 통일교이며, 남편의 직업은 자영업이고 가계 월 소득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았다. [김○○○가족]은 필리핀 출신의 여성과 연애 결혼한 한국인 남성으로 2년 4개월 동안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있으며, 1남 2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학력은 아내가 대학중퇴, 남편은 중졸, 시부모는 무학이고, 종교는 모두 기독교이다. 아내는 과외교사로서 이 가족의 고정된 가계 월 소득은 20만원이다. [윙○○○가족]은 베트남출신의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중매 결혼하여 2년 동안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있으며, 자녀는 1명을 두고 있다. 아내의 연령은 23세, 남편은 37세, 시부모는 62세이고, 학력의 경우 아내와 시부모는 중졸, 남편은 초대졸이며, 종교는 모두 불교이다. 남편은 회사원으로서 가계의 월 소득은 210만원이다. [부○○가족]은 베트남출신의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중매 결혼하여 4년의 결혼생활을 지속하였고, 1남 1녀를 두고 있다. 아내의 연령은 24세, 남편은 42세, 시부모는 60세이다. 학력은 아내와 시부모는 무학이고, 남편은 고졸이다. 종교는 남편만이 천주교이고, 직업은 엔지니어, 시부모는 식당보조로 일하고 있으며 가계의 월 소득은 280만원이다. [탕○○○가족]은 베트남출신의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중매 결혼하여 4년의 결혼생활을 하였고, 자녀는 1남 1녀를 두고 있다. 아내의 학력은 중학교중퇴, 남편은 고졸이고, 종교는 아내만이 불교이다. 남편은 회사원이며, 가계의 월 소득은 540만원이다. [노○○○가족]은 베트남출신의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중매로 결혼하여 3년 동안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있다. 아내의 연령은 23세, 남편은 39세, 시부모는 56세이다. 남편은 대졸이고 불교이며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윤○○가족]은 중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중매로 결혼하였으며, 결혼지속연수는 3년 6개월이다. 아내의 연령은 28세, 남편은 42세, 시부모는 67세이다. 아내의 학력은 고졸, 남편은 대졸이다. 종교는 시부모가 불교이다. 남편과 시부모는 농부이며 가계의 월 소득은 100만원이다. [박○가족]은 중국인 출신의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중매로 결혼하였으며, 결혼지속연수는 11년으로 슬하에 2명의 자녀가 있다. 아내의 연령은 39세, 남편은 41세, 자녀는 11세이다. 학력은 아내가 고졸, 남편이 중졸, 자녀가 초등학교 재학 중이다. 종교는 남편과 자녀가 불교이고, 직업은 아내가 과외교사, 남편

은 농부이다. 가계 월 소득은 125만원이다. [문ㅇㅇㅇ가족]은 몽골출신의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중매로 결혼하였고, 결혼지속연수가 8년이며,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아내의 연령은 31세, 남편은 36세, 시부모는 55세이고, 학력은 아내가 대학중퇴, 남편이 고졸이다. 종교는 아내와 남편이 통일교이고, 남편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가계의 월 소득은 200만원이다. [람ㅇㅇㅇ가족]은 베트남출신의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연애로 결혼하였고 2년 동안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있다. 아내의 연령은 23세, 남편이 37세, 시부모가 59세이다. 아내와 남편 모두 대졸이고, 남편은 회사원이다. 이 가족의 가계 월 소득은 233만원이다. [펠ㅇㅇㅇ가족]은 필리핀출신의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중매로 결혼하였고, 결혼지속연수는 4년으로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아내의 연령은 28세, 남편은 46세, 시부모는 77세이다. 아내의 학력은 중졸, 남편은 고졸이고, 종교는 아내가 천주교, 시부모는 기독교이다. 남편은 택시기사로 가계 월 소득은 200만원이다. [알ㅇㅇ가족]은 아프리카출신의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연애 결혼하여 10년 동안 결혼생활을 지속하였고, 슬하에 2녀를 두고 있다. 아내의 연령은 38세, 남편은 40세, 시부모는 67세이고, 남편은 고졸이다. 종교는 남편만이 천주교이고, 직업은 엔지니어이다. [이ㅇㅇ가족]은 중국인 출신의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연애로 결혼하였고 결혼지속연수는 3년이다. 아내의 연령은 27세, 남편은 32세, 시부모는 57세이고, 학력은 아내가 대학중퇴, 남편이 대졸이다. 종교는 모두 불교이다. [마ㅇㅇ가족]은 필리핀출신의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중매로 결혼하였고 결혼지속연수는 5년이다. 슬하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연령은 아내가 36세, 남편이 41세, 시부모는 63세이고, 학력은 아내가 초대졸, 남편이 고졸이다. 종교는 아내와 남편이 천주교, 시부모는 기독교이다. 아내는 영어강사이고, 남편은 엔지니어이며, 가계의 월 소득은 300만원이다. [유ㅇㅇ가족]은 필리핀출신의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연애로 결혼하였고 17년 동안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있으며,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아내의 연령은 37세, 남편은 42세, 자녀는 12세이고, 학력은 아내와 남편이 고졸이고, 자녀는 초등학교 재학 중이다. 종교는 아내가 천주교, 남편과 자녀는 기독교이다. 직업은 아내가 한글방문지도사이고, 남편이 운수업자이며, 가계의 월 소득은 500만원이다. [디ㅇ가족]은 베트남출신의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중매로 결혼하였고 결혼지속연수는 1년 7개월이다. 아내의 연령은 22세, 남편은 38세로 슬하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고, 시부모는 70세이다. 아내의 학력은 중학교중퇴, 남편은 전문대졸, 시부모는 초등학교 졸이다. 종교는 시부모만이 천주교이다. 직업은 남편이 회사원이고, 가계의 월 소득은 150만원이다. [이ㅇㅇ가족]은 베트남출신의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중매로 결혼하였고 결혼지속연수는 2년이다. 아내의 연령은 25세, 남편은 40세로 1명의 자녀를 두고 있고, 시부모는 74세이다. 학력은 아내가 중졸, 남편과 시부모는 고졸이다. 종교는 모두 천주교이고, 남편의 직업은 엔지니어이다. 가계의 월 소득은 250만원이다. [징ㅇㅇ가족]은 중국출신의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연애로 결혼하였으며 결혼지속연수는 2년이다. 아내의 연령은 27세, 남편은 37세이고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시부모의 연령은 67세이다. 학력은 아내가 고졸, 남편이 대졸, 시부모는 초등학교 중퇴이다. 종교는 모두 불교이고, 남편은 회사원이다. 가계 월 소득은 300만원이다. [동ㅇㅇ가족]은 캄보디아출신의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중매로 결혼하였고 3년 동안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있으며,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아내의 연령은 26세, 남편은 49세, 시부모는 58세이며, 남편의 학력은 고졸이다. 종교는 아내가 불교이고, 남편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옥ㅇㅇ가족]은 베트남출신의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중매로 결혼하였고 결혼지속연수는 4년이다. 아내의 연령은 23세, 남편은 46세이고 슬하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시부모는 55세이다. 아내와 남편의 학력은 고졸이고, 남편만이 기독교이다. 남편의 직업은 경비이고, 가계의 월 소득은 120만원이다. [르ㅇㅇ가족]은 베트남출신의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중매로 결혼하였으며 결혼지속연수는 3년이다. 아내의 연령은 29세, 남편은 53세, 시부모는 77세이다. 아내와 남편의 학력은 고졸이고, 아내만이 불교이다. 직업은 아내가 미싱보조, 남편이 택시기사이며, 가계 월 소득은 270만원이다. [손ㅇㅇ가족]은 중국인출신의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중매로 결혼하였고 결혼지속연수는 4년이다. 아내의 연령은 34세, 남편은 37세, 시부모는 66세이고, 학력은 아내가 대학중퇴, 남편이 초대졸이다. 남편과 시부모는 기독교이고, 남편의 직업은 목수이다. 가계 월 소득은 200만원이다. [정ㅇㅇ가족]은 중국인 출신의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연애 결혼하여 8년 동안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있으며,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아내의 연령은 35세, 남편은 42세, 시부모는 79세이고, 학력은 아내와 남편이 대졸, 시부모가 고졸이다. 종교는 모두 기독교이고, 직업은 아내가 과외교사로서 가계 월 소득은 100만원이다. [누ㅇㅇㅇ가족]은 베트남출신의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중매로 결혼하였고 결혼지속연수는 1년이다. 아내의 연령은 22세, 남편은 45세, 시부모는 65세이고, 남편과 아내의 학력은 중졸이다. 종교는 아내와 시부모가 불교, 남편이 통일교이다. 직업은 아내가 식당보조, 남편이 자영업자이며, 가계 월 소득은 150만원이다. [란ㅇㅇ가족]은 중국인출신의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중매로 결혼하였고 결혼지속연수는 2년이다. 아내의 연령은 23세, 남편은 43세로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시부모는 64세이다. 학력은 아내가 대졸, 남편이 대학원졸, 시부모가 초졸이고, 종교는 모두 불교이

다. 직업은 남편이 회사원이고, 가계 월 소득은 1500만원이다. [안○가족]은 베트남출신의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중매로 결혼하였고 결혼지속연수는 2년이다. 연령은 아내가 23세, 남편이 43세, 시부모가 76세이고,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학력은 아내와 시부모가 초졸, 남편은 고졸이고, 종교는 모두 기독교이다. 남편은 고물상을 하고 있고, 가계 월 소득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았다. [자○○○가족]은 베트남출신의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연애 결혼하여 1년 동안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있으며, 연령의 경우 아내는 22세, 남편은 37세, 시부모는 69세이다. 아내의 학력은 중졸, 남편은 고졸이고, 종교는 아내와 남편이 모두 천주교이다. 직업은 아내가 식당보조, 남편이 농부로서 고정된 가계 월 소득은 30만원이다. [임○가족]은 중국인출신의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중매로 결혼하였고 결혼지속연수는 2년이다. 아내의 연령은 31세, 남편은 37세, 시부모는 66세이다. 학력은 모두 고졸이고, 종교는 모두 무교이다. 남편은 인테리어사이고, 가계 월 소득은 200만원이다. [주○○가족]은 중국인출신의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중매로 결혼하였으며 4년 동안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있다. 연령의 경우, 아내는 32세, 남편은 42세로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시부모는 81세이다. 학력은 아내와 남편이 고졸이고, 아내만이 기독교이다. 남편은 운송업자이고, 가계 월 소득은 200만원이다. [홍○○가족]은 필리핀출신의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중매로 결혼하였고 결혼지속연수는 8년이다. 아내의 연령은 36세, 남편은 45세이고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시부모는 68세이다. 남편의 학력은 고졸, 아내는 중학교 중퇴이고, 종교는 아내와 남편이 모두 통일교이다. 직업은 아내가 영어강사, 남편은 농부이며, 가계 월 소득은 260만원이다.

〈표 1〉 연구대상가족의 특성

이름	대상	출신국	연령	결혼 유형	결혼지속 연수	자녀수		학력	종교	직업	가계 월소득 (만원)
						남	여				
박○○ 가족	아내	몽골	27	연애	5년	1	1	대학중퇴	통일교	주부	250
	남편		33	결혼				고졸	무교	회사원	
	외할머니		71					–	무교	–	
비○○ 가족	아내	필리핀	34	연애	4년	1	1	대학중퇴	통일교	주부	무응답
	남편		46	결혼				중졸	통일교	자영업자	
	자녀		9					초재	통일교	학생	
김○○○ 가족	아내	필리핀	22	연애	2년4개월	1	2	대학중퇴	기독교	과외교사	20
	남편		34	결혼				대졸	기독교	–	
	시부모		55					–	기독교	–	
윙○○○ 가족	아내	베트남	23	중매	2년		1	중졸	불교	주부	210
	남편		37	결혼				초대졸	불교	회사원	
	시부모		62					중졸	불교	–	
부○○ 가족	아내	베트남	24	중매	4년	1		–	–	–	280
	남편		42	결혼				고졸	천주교	금형	
	시부모		60					–	–	식당보조	
탕○○○ 가족	아내	베트남	27	중매	4년	1	1	중중퇴	불교	주부	540
	남편		44	결혼				고졸	–	회사원	
	시부모		74					–	–	–	
노○○○ 가족	아내	베트남	23	중매	3년			–	–	–	–
	남편		39	결혼				대졸	불교	대학원생	
	시부모		56					–	–	–	
윤○○ 가족	아내	중국	28	중매	3년6개월			고졸	–	주부	100
	남편		42	결혼				대졸	–	농부	
	시부모		67					–	불교	농부	
박○ 가족	아내	중국	39	중매	11년		2	고졸	–	과외교사	1,250
	남편		41	결혼				중졸	불교	농부	
	자녀		11					초재	불교	학생	
문○○○ 가족	아내	몽골	31	중매	8년	1	1	대학중퇴	통일교	주부	200
	남편		36	결혼				고졸	통일교	자영업자	
	시부모		55					–	–	주부	

〈표 1〉 연구대상가족의 특성

이름	대상	출신국	연령	결혼 유형	결혼지속 연수	자녀수 남	자녀수 여	학력	종교	직업	가계 월소득 (만원)
람○○○	아내	베트남	23	연애	2년			대졸	–	주부	233
가족	남편		37	결혼				대졸	–	회사원	
	시부모		59					–	–	–	
펠○○○	아내	필리핀	28	중매	4년	1	1	중졸	천주교	주부	200
가족	남편		46	결혼				고졸	–	택시기사	
	시부모		77					–	기독교	–	
알○○	아내	아프리카	38	연애	10년		2	–	–	주부	–
가족	남편		40	결혼				고졸	천주교	엔지니어	
	자녀		67					–	–	–	
이○○	아내	중국	27	연애	3년			대학중퇴	불교	주부	–
가족	남편		32	결혼				대졸	불교	–	
	시부모		57					–	불교	–	
마○○	아내	필리핀	36	중매	5년	1		초대졸	천주교	영어강사	300
가족	남편		41	결혼				고졸	천주교	엔지니어	
	시부모		63					–	기독교	–	
유○○	아내	필리핀	37	연애	17년	1	2	고졸	천주교	방문지도사	500
가족	남편		42	결혼				고졸	기독교	운수업자	
	자녀		12					초재	기독교	학생	
디○	아내	베트남	22	중매	5년		1	중중퇴	–	주부	150
가족	남편		38	결혼				초대졸	–	회사원	
	시부모		70					초졸	천주교	–	
이○○	아내	베트남	25	중매	2년	1		중졸	천주교	주부	250
가족	남편		40	결혼				고졸	천주교	엔지니어	
	시부모		74					고졸	천주교	–	
징○○	아내	중국	27	연애	2년	1		고졸	불교	–	300
가족	남편		37	결혼				대졸	불교	회사원	
	시부모		67					초중퇴	불교	–	
동○○	아내	캄보디아	26	중매	3년		1	–	불교	주부	–
가족	남편		49	결혼				고졸	–	자영업자	
	시부모		58					–	–	–	
옥○○	아내	베트남	23	중매	4년	1		고졸	–	주부	120
가족	남편		46	결혼				고졸	기독교	경비	
	시부모	55						–	–	–	
르○○	아내	베트남	29	중매	3년			고졸	불교	미싱보조	270
가족	남편		53	결혼				고졸	–	택시기사	
	시부모		77					–	–	–	
손○○	아내	중국	34	중매	4년			대학중퇴	–	–	200
가족	남편		37	결혼				초대졸	기독교	목수	
	시부모		66					–	기독교	–	
정○○	아내	중국	35	연애	8년		1	대졸	기독교	과외교사	100
가족	남편		42	결혼				대졸	기독교	–	
	시부모		79					고졸	기독교	–	
누○○○	아내	베트남	22	중매	3년			중졸	불교	식당보조	150
가족	남편		45	결혼				중졸	통일교	자영업자	
	시부모		65					–	불교	–	
란○○	아내	중국	34	중매	2년		1	대졸	불교	–	1,500
가족	남편		38	결혼				대학원	불교	회사원	
	시부모		64					초졸	불교	–	

〈표 1〉 연구대상가족의 특성

이름	대상	출신국	연령	결혼 유형	결혼지속 연수	자녀수 남	자녀수 여	학력	종교	직업	가계 월소득 (만원)
안○	아내	베트남	23	중매	2년	1		중졸	기독교	주부	무응답
가족	남편		43	결혼				고졸	기독교	고물상	
	시부모		76					초졸	기독교	–	
자○○○	아내	베트남	22	연애	2년			중졸	천주교	식당보조	30
가족	남편		37	결혼				고졸	천주교	농부	
	시부모		69					–	–	–	
임○	아내	중국	31	중매	2년			고졸	–	–	200
가족	남편		37	결혼				고졸	–	인테리어사	
	시부모		66					고졸	–	–	
주○○	아내	중국	32	중매	4년	1		고졸	기독교	주부	200
가족	남편		42	결혼				고졸	–	운송업자	
	시부모		81					–	천주교	–	
홍○○	아내	필리핀	36	중매	8년	1		고졸	통일교	영어강사	260
가족	남편		45	결혼				중중퇴	통일교	농부	
	시부모		68						–	–	

2. 다문화가족의 레질리언스

다문화가족의 삶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족을 사회구성의 가장 작은 단위인 동시에 하나의 사회체계 또는 기능적인 단위로 파악하고 있는 가족체계이론은 높은 설명력을 제시할 수 있다(정민자, 1991). 이러한 관점에서 다문화가족의 가족원은 살아있는 가족유기체로서 역동적인 체계를 이루는 존재로서 이해할 수 있다.

가족체계이론에 의하면 가족체계가 목표를 달성하거나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위기에 직면하는 경우 어떤 종류의 내용과 에너지, 사건, 자극 등이 투입되느냐에 따라 가족체계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전환과정이 가족체계를 움직이고 그 결과 가족체계의 기능, 역기능 및 가족원의 행동 및 적응패턴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강점 및 레질리언스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개인이 아닌 가족을 단위로 하여 가족전체를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을 하나의 유기체로서 한국사회에서 적응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위기와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론적 배경을 통해 도출한 신념체계(가치, 목표, 영성), 가족기능(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 역할기대), 사회연계성(사회활동, 자원봉사)의 레질리언스 구성요소가 어떠한 방법으로 다문화가족의 건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1) 신념체계

신념체계는 모든 가족기능의 핵심이며 레질리언스의 강력한 힘이다. 가족의 공유된 신념은 가족이 역경을 다루는 방법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가족생활을 지배하는 가족규범을 형성한다. 가족레질리언스에서 가족의 신념은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능력, 긍정적 시각 및 강점과 가능성에 대한 확신 그리고 초월과 영성으로 정의된다(Walsh, 양옥경 외 역, 2002).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신념체계'를 가족이 공유하는 목표, 영성 그리고 가치관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가족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영성 및 가치관은 큰 비중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가족이 공유하는 목표'는 가족레질리언스를 구성하는 요인으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 가족이 공유하는 목표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삶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다. 현재 삶에서 더 발전적이고, 더 나아지려하며 최종적으로 이루고자하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가운데 삶의 비전을 찾는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이 자녀에 대한 희망이나 부부가 이루어내고 싶은 일 등 미래에 대해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비전, 포부 등을 '가족이 공유하는 목표' 이라는 용어에 통합시켜 분석하였다. '가족이 공유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가족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족구성원간에 충분한 대화가 오가며 계획을 세우고, 자기 개발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여 마침내 비교할 수 없도록 성장한다.

특히 중국출신의 여성들은 중국인이 가진 느긋함과 인내심, 필리핀여성들은 필리핀인의 강한 생활력과 친족 간의 연대감 등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견디며 그들 가족만의 미래와 비전을 설계하는데 영향을 나타내었다.

[사례 22]는 중국에서 중의학 학위를 취득하고 중국인 여성과 연애 결혼하여 한국으로 돌아온 사례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취득한 학위를 인정받지 못하여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보증을 서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이렇게 힘들지 몰랐다고 말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다. 남편이 중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5년 동안 한국어를 배우지 않고 남편과 중국말을 사용하므로 둘 사이의 의사소통에는 어려움이 없었으며, 남편이 중국인의 기본적인 생활방식도 알고 있었고 중국음식도 좋아했기 때문에 결혼생활 중에 큰 어려움은 없었으나 시장이나 은행업무 그리고 친구 사귀기 등 일상 ·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3년 전부터 한국어를 배우러 센터에 다니게 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친밀해지면서 다른 다문화가족의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다른 가족에게 어려움이 있는 경우 통역봉사를 하거나 중국어를 가르쳐주면서 자신이 경험한 삶에 위로를 받으며 조금 더 구체적인 비전을 남편과 공유하게 되었다. 현재 이 가족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멘토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생활이 안정되면 사회복지학을 공부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가족이 갖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서로가 지향하는 가치와 목표가 일치될 때에 얻을 수 있는 건강성을 발견할 수 있게 하였다.

[사례 22 – OOO 가족]

■ 처음에 남편 돈 없어서 집도 없었어요. 아주버님 집에서 3개월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한국말도 몰랐고 그리고 형님도 그때도 그랬고 그때 많이 힘들었어요. (중략) 지금은 그냥 어렵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고 우리 감정적으로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꿈이 많아요. 요즘에는 중국어 가르치는데 아이들한테 정말 잘 가르치고 싶어요. 한국어도 잘하고 중국문화도 잘 가르치고 싶거든요. 그리고 요즘 여기 오는데 외국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행복한 사람들 많이 못 봤어요. 남편이 때리고 이혼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통역 많이 해줬어요. 나중에 사회복지학과 공부해서 진짜 이런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사례 22-아내]

■ 중국에서 한의학 공부를 했어요. 한국에선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대 한의대시험을 봤는데 4개월 준비하고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방법을 찾아보자 했던 게 그 과정 중에 관광통역사를 알게 됐고 공부를 더 하면 어떨까 혼자 생각만 했는데 아내가 먼저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떻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많이 믿어주는 것 같아요. (중략) 지금은 아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통역봉사를 하고 있고 저도 공부하면서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시험에 합격하고 아내가 생계를 책임지지 않아도 될 때가 되면 그때는 아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적극적으로 뒷바라지할 생각입니다. [사례 22-남편]

(2) 가족기능

가족기능은 Silliman(1994)과 Walsh(1998)등이 정의내린 레질리언스 구성요소로서 가족이 수행하는 역할이나 행위로서의 가족행동을 의미하는데 이는 가족구성원의 욕구충족이나 사회의 유지, 존속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하는 문제와 관련된 개념이다(유영주, 1993).

권복순(2000)은 가족기능이란 가족체계 내의 개인 성원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가족체계 밖의 관계에서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등 개인성원으로서 동시에 전체가족으로 정체성과 관계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레질리언스를 구성하는 요인으로서 가족기능은 가족의 관계양상에 안정과 변화의 균형에 영향을 주는 가족행동으로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가족성원의 역할, 의사소통 등의 하위개념을 포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가족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역할기대에 대한 만족' 요인이 중요한 가족레질리언스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1) 가족응집성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여성의 한국어습득, 한국음식 및 문화적응 등과 같은 과업을 가장 우선시하여 결혼이민자여성을 한 가족으로 맞이하기 위한 지원과 노력에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다(안혜옥, 2007). 그 과정 속에서 관계의 끈끈함과 단결됨은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결속시키고, 결혼이민자여성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응집력의 속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박의순(1990)은 응집성이란 지각된 인간관계의 질을 나타내는 애정적 결속의 포괄적인 내용으로서 심리적 · 정서적인 가까움의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주관적인 유대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까움, 따뜻함, 신뢰, 관심, 이해, 존경, 도움, 대화, 연속감과 같은 애정적인 결속, 호의적인 감정(서동인, 1991), 가계 계승감, 규범적 결속(Robertson, 1977; 박의순, 1990 재인용)을 말한다. 즉 다른 가족원과 친밀하여 신뢰하고 신뢰를 받고 존경하며 존경받는다는 지각을 포함하며, 상호간에 공평함과 이해의 감정적인 측면도 포함한다고 정의함으로써 이는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가족응집성의 개념과 유사하다.

가족응집성에 관련해서 나라별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베트남사회의 문화적 영향은 한국 남성과의 결혼생활 속에서 정서적인 밀접성과 친밀성을 강화시킬 수 있었으며, 가까운 친족과 매우 강력한 연대를 맺고 생활하는 필리핀 그리고 사회주의적인 가정관으로 섬김의 지혜를 나타내는 중국 등 결혼이민자여성들이 출신국에 따른 문화적 배경은 가족을 하나의 유기체로서 환경의 영향을 받는 체계로 이해할 때 그들 안에 발견할 수 있는 응집성을 이해하기에 유용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족응집성' 이라는 용어에 포함시켜, 본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가족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대화를 자주하며, 애정표현도 빈번한 형태로 나타내는 등 부부친밀도나 가족응집성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선행연구에서도 높은 응집성을 가진 가족은 위기상황에서 외부에 의지하지 않으며 부정적인 감정표출이 적고, 회피형의 자세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족의 레질리언스를 향상시키는데 가족응집성이 주요한 요인임을 예측하게 하였으며(김현경, 2005), Silliman(1994)이 제시한 가족의 응집성, 공유시간 등은 본 연구가 정의한 가족친밀감의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다문화가족의 레질리언스로서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의 대상가족 중 [사례 21]은 결혼 전 남편이 창업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여 현재의 아내를 만나 연애 결혼하게 된 경우이다. 타국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어려움을 밝고 명랑한 성격인 아내의 도움으로 해결하였으나 결혼 초기 경험한 아내의 한국어구사능력의 부족,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부족, 아내가 타국에서 느끼는 외로움 등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이들 가족이 함께 해결해야하는 과제였다. 이를 위해 [사례21]의 남편은 아내의 자존감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가족행사에 참가시키고 모든 가족이 응원하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거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한국어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시부모님의 경우 타국에서 느끼는 외로움을 마음 깊숙이 이해하고, 아기를 갖은 며느리를 위해 지극한 돌봄도 기꺼이 감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결혼이민자여성인 아내에게 행복감과 가족에 소속되었다는 유대감을 강화시켜주기에 충분하였다.

또 다른 [사례 11]은 아는 지인의 소개로 베트남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된 경우이다. 처음에 결혼이민자여성의 경우 의사소통, 음식 등의 문제와 타국에서의 외로움으로 울기만 하였지만 시부모와 남편의 관심과 대화로 어려움을 헤쳐 나갔다. 또한 가족 간에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극복된다고 믿으며 실제로도 그렇게 행동한다. 결혼이민자여성의 경우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친근한 대상으로 느끼고 있었으며 시어머니의 경우도 국제결혼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결혼이민자여성들이 사회적 차별을 받음으로써 겪는 설움과 아픔을 이해하고 수용해고 있었다.

[사례 21 – OOO 가족]

■ 사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중국생각이 많이 났어요. 중국에서도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것은 아니지만 제가 가고 싶을 때, 보고 싶을 때 자유롭게 갈 수 있잖아요. (중략) 그래도 좀 행운인 것은 저희 둘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조언을 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뭐라고 딱히 꼬집어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작은 것부터 해서 큰 것 까지, 아직까지는 문화라든지 예의범절이나 가정일이나 그런 쪽으로 딱히 뭐라고 말 할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도움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되었지만 가족이 큰 힘이 된다는 것이 무척 감사하고 있어요[사례 21-아내].

■ 초기에 아내가 느낄 수 있는 외로움에 대해 중국에서도 서로 충분히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현실에서 와 닿는 것은 조금 달랐어요. 특히 중국에서 했던 일을 한국에서도 계속 하고 싶어 하는데 언어의 문제나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는 자격에 대한 문제는 아내한테 말할 수 없었지만 고민을 많이 하게 했죠. (중략) 그래도 집안 식구들이 절대 외롭지 않게 해주려고 노력해요. 저를 믿고 왔는데 가고 싶다고 해도 서울이나 가까운 곳을 가는 것처럼 차비만 들고 후딱 갔다 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항상 즐겁게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외로움을 채워주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저랑 세 식구 얘기할 때 답답하니까 다시 그 얘기를 다 해줘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나 부모님 들으시라고 해주고 조그만 의견도 다 얘기해주고 제가 전해주고 하죠. 아내의 의견이 뭔지 들어서 집안일이나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죠. 아내도 가족이니까요. [사례 21-남편]

■ 응. 내가 뭐든지 잘 먹이려고 뭐든지 '뭐 먹고 싶으냐?' 그러면은 '먹고 싶은 거 없어요.' 그래. 그래도 '과일 사다줄게.' 하고 골고루 사가지고 와서 며느리 먹으라고 냉장고에 갔다 넣어놔. 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와서 조그맣게 얘기해. 아까도 낮에 산부인과에 다녀왔거든, 먹고 싶은 거 있다고만 하면 무조건 해주니까 잘 먹지. 그러고 불쌍하잖아. 같은 중국에서는 가고 싶으면 일단은

한국에서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금방 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면 나도 딱해서 마음이 짠해. 나도 딸 하나 아들하나 딱 그거거든. 내 딸 보다 진짜 내가 더 잘해 주려고해. 그러니까 딸이 질투나 죽으려해.[사례 21-시부모]

[사례 11 – OOO 가족]

■ 시집가서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엄마가 어릴 때 시집와서 힘들어서 그렇다고 열심히 살면 다 잊는다고 했어요. 엄마가 계속 얘기 해줬어요.. 조금만 참으라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신랑이 사랑해주니까 참을 수 있었어요 [사례 11-아내]

■ 저는 힘든 적이 없어요. 와이프가 힘들지, 저야 힘든 것은 없죠. **(와이프 분은 힘든 것을 많이 내색하세요?)** 내색하는 것보다 자기가 언어가 힘드니까 그러지..그래서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세요. 저는 집에 오면 대화를 많이 하고. 신혼 때 있었던 일, 가정 일, 기타 등등 돈 문제 이런 거 많이 해요 [사례 11-남편]

■ 며느리가 동네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해주세요?)** 세상은 참 어렵다. 동네사람들이 저렇게 너를 편견을 가지고 있어도 넌 자부심을 가져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한민국사람이다. 그리고 국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베트남에 가서 내가 보기에 건실하게 살고 내가 보기에도 노력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 그 사람들이 날 사랑할게 아니냐.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얻으니까 어떤 일이 있던지 싫어하지 말고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하라고 말해주지 [사례 11-시어머니]

2) 가족적응성

가족은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는 집단으로 크고 작은 갈등과 문제에 직면하며 살아간다. 다문화 가족의 경우 건강한 가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족의 스트레스와 위기는 갈등대처기술, 공통언어습득, 서로 다른 기질을 이해하는 방법 등을 형성해감으로서 서로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응방법이 될 수 있다.

유영주(2001)에 따르면 적응의 본질은 자아실현과 동시에 환경을 고려하고 사회기대에 맞춰가는 과정이며 부부의 적응도 부부 서로간의 적응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인간적 환경이라는 여러 외적 조건에 대한 적응이라 하였다. 이렇듯 다문화가족구성원의 실천적인 노력에 관한 내용들을 '가족의 적응 노력' 이라는 용어에 통합시켜 분석하였다.

'가족의 적응 노력' 을 가족의 강점으로 생각하는 가족은 가족 간에 대화가 많고 서로 간에 관심이 많았다. 또한 공통언어를 가지고 있어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였으며, 서로 합의된 갈등대처기술로서 양보 및 타협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사례 7]의 경우 결혼 초기 경험한 결혼이민자여성의 외로움은 가장 힘든 문제였다. 타국에서 경험하는 새로운 삶과 가족에 대한 빈자리는 외로움이 더욱 깊어지게 하였다. 또한 현실적으로 필리핀 아내가 한국문화에 일방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상황은 안타까움을 더하였다. 특히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 문제로 인한 잦은 오해와 갈등은 이들 가족이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위기였다.

그러나 이들 가족은 남편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을 통하여 한국어습득을 위한 관련정보를 아내에게 제공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4년이 지난 지금(2008년)은 한국인 못지않은 언어실력을 갖추었다. 의사소통의 불편을 계기로 남편과 발생한 갈등을 단순히 넘기지 않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였기 때문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방문하여 한국어를 배우거나 집에 방문하여 가르쳐주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언어소통의 불편을 해결하려는 아내의 노력은 남편과 시부모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끈끈한 유대와 남다른 효(孝)문화를 가지고 있는 필리핀 출신의 결혼이민자여성이 부모와 남편을 극진히 모시는 모습은 가족들에게 감격적이기까지 했다. 이런 모습은 가족들은 결혼이민자여성을 더 보살피고 도움을 주려는 마음을 아끼지 않도록 하였으며,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갈등과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촉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파악되었다.

[사례 17]의 경우도 남편의 직업특성 상(택시운전사) 유동성 때문에 많은 센터를 돌아다니면서 직접 정보를 얻으러 다니고, 센터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결혼이민자 정책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센터에 방문에 건의하기도 한다. 많은 정보탐색으로 인해 아내의 한국생활 정착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베트남 아내와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베트남어를 배워서 현재 일정수준의 베트남어로 소통이 가능하다.

[사례 7 – OOO 가족]

■ 솔직히 처음에는 힘들었죠. 말도 안통하고, 문화도 안통하고. 본인도 그럴 거고, 식구들끼리 얘기하면 자기 흉보는 줄 알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많이. 처음에 결혼해서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엄마하고 이

야기를 하는데. 필리핀에서는 목소리를 크게 하면 화난 줄 안대요.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있잖아요. 화 안 나도.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목소리 원래 크고 톤이 높아서 그렇지 화나서 그런 거 아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하다 보니 말이 안통하고 하니까, 그렇게 싸우다가 한번은 필리핀에 간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 맘대로 해" 그러니까 정말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내가 안 데리러 갔어. 그랬더니 거기 소개소 전화 왔더라고요, 지금 여기 있는데 데리고 간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라고 했더니 집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거 한 번 크게 싸웠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감정이 서로 좋지는 않았을 텐데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인제 그것에 관해 설명하고, 이거는 문화 차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니까 이제 조금씩 수긍을 하고 그런 거죠. '목소리 높은 거는 화나서 그런 게 아니다.' 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더욱더 대화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또 제가 택시운전을 하다보니까 여기 저기에서 듣는 것도 많고 아내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알려주려고 노력도 많이 해요. 그래서 한국어교실도 알아보고 방문교사도 알아보고 그래서 지금은 아내가 한국어 교육 받는데 도움이 좀 되었을 거예요.[사례7. 남편]

■ 문화가 달라서 존댓말은 잘 쓰지는 못해도 어머님 소리는 잘하더라고. 한국 사람들은 존댓말이 있는데 외국 사람들은 존댓말이 없대. **(그런 이유로 갈등이 생긴 적이 있으세요?)** 지금은 갈등이 생길 것도 없고 처음에는 모르니까 애도타고. 일 끝나고 자기 집으로 오라고 그러더라고. 밥 해준다고 오라하더라고 고맙지요. 어지럽다고 하니까 집에 혼자 있으니깐 잘 못 먹어서 그렇다고.. 오라는 것 만해도 감동스럽고 고맙더라고. [사례7. 시부모]

[사례 17 – OOO 가족]

■ **(남편과의 의사소통은 어때요?)** 남편이 베트남어 좀 많이 알아요. **(그러면 대화하는데 편하겠어요.)** 네. 대화하는데 편해요. (중략) 친구가 없어서 외로웠는데 남편이 소개해 준 한국어 교실에 와서 친구도 많이 사귀고 재미있어요. [사례17. 아내]

■ 아내가 한국어를 빨리 배우는 편인데 한국어 학교 덕분이라고 봐야지. 지금은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 70%나 알아들을 거 같고 나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사전 하나 사서 쫌 공부를 했지.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알아들어. (중략) 내가 개인택시를 하는데 현수막을 많이 봐요. 그리고 저는 좋은 것도 건의하고 아이디어도 많이 내요. [사례17. 남편]

3) 역할기대에 대한 만족

역할기대란 역할수행에 관한 평가기준으로써, 역할담당자에 대한 타인으로부터의 역할수행의 기대를 뜻한다고 정의 하였다(안희순, 1987).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가족구성원들이 기대하는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다른 가족구성원들이 만족하는 경우 "역할기대에 대한 만족"이라는 용어로 통합시켰다.

연구에 참여한 가족들은 서로의 역할에 있어서 큰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역할기대(아이양육, 살림, 자립, 용돈)에서 큰 행복을 느끼며 감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이 원하는 각자의 역할기대는 지극히 당연해 보일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문화가 결합한 가정에서 각 가족구성원들이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 파악하고,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과정까지는 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조건이다.

역할수행과 역할기대에 관한 연구를 한 안희순(1987)에 따르면 역할기대에서의 충족감은 역할관계자에게 부여되는 역할기대와 역할수행에 관한 평가와 해석여하에 좌우되므로 가족구성원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를 충분히 고민하여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각 가족구성원은 다른 가족구성원의 역할수행이 본인의 기대치와 부합하는 경우 수용적이고 부드러운 태도로 가족 내에서 융합되고 있었다.

필리핀 출신의 결혼이민자여성의 경우에는 가족주의 전통이 강하여 부양의식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남다르다. 이 때문에 친족 모두가 의지하며 생활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런 특성은 필리핀계 결혼이민자여성들도 친정식구들에게 소홀히 하지 않으며 상대방 친족에게 존경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친정식구들의 만족도가 높으며, 더불어 부부사이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어른을 공경하고 남편을 섬기는 전통이 한국과 유사하여 역할수행에 있어서 큰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중국인 중에 조선족은 한국인과 식습관이 비슷하여 한국생활적응능력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강점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중시한다는 점과 동시에 중국어와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녀교육과 관련된 부모의 역할수행에서도 강점을 나타내고 있었다.

[사례 2]의 경우 한국문화에 익숙지 않은 필리핀 결혼이민자여성과 어렵게 결정한 국제결혼(중매)은 순탄하지 않았다. 일정부분을 아내로서 감당하길 원했지만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남편이 아이양육을 전적으로 맡아서 해야 할 정도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가 한국의 의료, 공공시설에 대한 개념에 적응하게 되면서 넉넉지 않은 형편이지만 알뜰살뜰하게 집안 살림과 아이양육을 하는 모습은 기특하게

느껴졌다. 또한 필리핀 출신의 결혼이민자여성의 경우에는 가족주의 전통이 강하여 부양의식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남다르다. 이로 인해 시댁식구들의 만족도가 높으며, 더불어 부부사이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남편의 경제능력과 상관없이 다정다감한 태도로 내조하는 아내를 보며 '고맙다, 기특하다' 는 칭찬을 하기도 하였다.

[사례 2 – OOO 가족]

■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외국으로 간다는 게..... 한참 생각했는데요. 왜냐면 말 안 통하는 거 그게 첫째죠. 처음에는 모르니까 애들 병원 가는 것도, 보건소 예방접종 하는 것도 내가 다 했는데 지금은 다 알아서 하고, 그리고 애들을 예뻐하는 거 같더라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틀린 거 같더라고. 자기가 다 알아서 살림하고, 애들 다 아파도 하나는 유모차 태우고 하나는 손잡고 데리고 다니는 거 보면 기특하고, 나는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일 끝나고 들어와서 밥 챙겨 먹는다고 해도 꼭 자기가 챙겨 줘야 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고맙죠. 요즘에는 애들 때문에 자기도 한국말 배워야 된다고 해요. [사례 2-남편]

■ 처음에 아기와 있을 때 이것저것 잘 안하더라고 **(지금은 어떤데요?)** 지금은 뭐 시킬 것도 없고 다 지가 알아서 하고 애기들 밥 먹다가도 뭐 흘리면 닦고 씻기고 뭐 다 하더라고 깔끔해. 다른 사람보다는 한국말을 잘하고 잘 알아들어. 난 우리 며느리고 아들이고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다 자기들이 돈 벌어서 집도 장만하고 나 용돈 받는 것도 미안해요. 너무 행복하고 며느리하고 다 사는데 아들, 딸들이 다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고.[사례 2-시부모]

(3) 사회연계성

가족은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사회 환경과 소통한다. 따라서 가족은 친척, 친구, 이웃, 지역사회 서비스, 치료나 상담 등을 통해 지지원을 확보하여 갈등대처 및 문제해결의 유익을 경험할 수 있으며, 사회 환경과의 빈약한 연계는 가족 고립과 사회적 지지의 부족으로 스트레스원을 유발하는 등의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Stinnet & DeFrain, 1985). 그러므로 레질리언트한 가족은 가족 주변의 다양한 사회, 경제적 자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아 건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가족레질리언스를 구성하는 요인으로서 사회연계성은 자원봉사활동, 종교활동 등 외부체계와의 끊임없는 접촉을 통해 사회적 지지 및 만족을 획득한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가족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회활동을 통해 얻는 만족 및 사회적 지지는 가족레질리언스를 구성하는 요인으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 사회활동에 대한 만족

인간은 개인의 삶의 전 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반경을 가족이외의 다른 구성원들로 확산시키면서 자신의 관계망을 넓혀가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몫을 담당해가며 살아가고 있다.

최현미(2008)는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는 일할 능력과 의욕이 있고, 건강한 여성인력을 개발하고, 결혼이민자 자신도 경제력을 갖추고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성취감을 가질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결혼이민자 학습활동 참여는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능을 갖고 다른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 여성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경제활동, 지역사회활동, 학습활동, 종교활동 등을 사회활동이라는 용어에 통합시켜 분석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민자여성 중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그로 인해 가족들과 사회에서 인정까지 받고 있는 사례가 있었다. [사례 3]의 가족은 결혼한 지 15년이 지난 가족으로서, 여성들의 학력이 높아지면서 NGO 운동 등 시민사회영역에서 여성들의 활동은 두드러지고 있는 필리핀출신의 결혼이민자여성은 한국인보다도 더 한국인다운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초기에는 본인과 전혀 다른 문화에 방황도 하고 갈등도 했었지만 매사에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격 탓에 한국사회적응기를 통해 체득한 생생한 삶의 지혜를 다른 결혼이민자여성들에게 전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아내의 노력은 남편이 평가하기에도 긍정적인 모습이었다. 초기엔 도움을 주기 위해 시작한 활동이었지만, 오히려 도움을 받고 있다는 남편의 이야기를 통해 이 가족의 사회활동이 그들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사례 2]는 결혼한 지 10년이 된 가정으로 필리핀 출신의 결혼이민자여성이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본인의 자원을 활용하여 직장을 가질 수 있었고 인정도 받고 있으며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었다. 한국어구사능력도 좋은 편이라 국제결혼이민자여성들 사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남편도 아내의 이런 성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아이들 역시 엄마의 사회적인 역할과 자원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지해주고 있었다.

[사례 3 – OOO 가족]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방문교육을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다문화가정에 방문하는 거라서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거잖아요. 차가 없으니까 하루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남편이 할 수 있겠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했어요. 저는 일 시작하기 전에 대화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 동생들 중에 남편들이 이해를 못 해서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엔 어머님이랑 같이 살면서 힘들었는데 친구들이나 동생들한테 네가 사는 거는 힘든 거 아니라고 말해줘요. 저는 6년 동안 시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힘든 거 많았는데 조금씩 대화하고 도와주면서 다 괜찮아졌어요. 사람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일이 좋아졌어요. [사례 3-아내]

■ **(지금 아내 분께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받는다기보다?)** 주고 받는 거죠. 그런 사례가 많은데 제 와이프가 여러 사람 모임에서 대변해주는 거죠. 그게 남을 위하는 거 같지만 본인이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아요. 남을 도우면서 자기도 도움을 받는 거죠. [사례 3-남편]

[사례 2 – OOO 가족]

■ 시어머니하고의 갈등과 남편이 장남이어서 겪었던 일들은 힘들었지만 일을 하면서 극복할 수 있었어요. 지금 국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일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을 위해 통역 그리고 영어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바빠요. 애들과 남편이 다 이해해줘서 진짜 너무 편해요. [사례 2-아내]

■ 아내가 자랑스럽고 놀란 거는 대학교에서 갔다가 한 달만에 우리나라 글씨 다 읽더라고요. 그걸 놀라가지고 감동했어요. 그걸 한 달을 다녔어요. 그 후에 자원 봉사하는 곳에서 남들을 좀 도와주면서 자신도 병원에서도 주사 맞춰주고 약 같은 거도 애기엄마한테 도움을 받았더라고요. 도움을 받았으니까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나 봐요. [사례 2-남편]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이들 가족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찾아내고 레질리언스를 구성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 가족(시부모, 자녀, 친인척 등) 총 31가구(93명)를 대상으로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심층면접의 내용은 배우자와 처음 만나서 결혼하기까지의 과정 · 국제결혼태도 · 가족관계 및 가족생활 · 사회적 관계 및 사회적응과정 · 사회서비스욕구 등이 포함되었다.

여러 학자들이 언급한 가족레질리언스 이론을 종합하여 레질리언스 구성요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신념체계(가치, 목표 등), 가족기능(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역할기대에 대한 만족, 의사소통 등), 사회연계성(자원봉사활동, 종교활동 등)이 포함되었다.

본 심층면접 연구결과 다문화 가족의 레질리언스를 구성하는 요인은 신념체계의 '가족이 공유하는 목표', 가족기능의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역할기대에 대한 만족', 사회연계성의 '사회활동을 통한 만족'의 요인으로서 다문화가족이 경험하는 위기 및 스트레스상황을 극복하고 건강성을 강화시켜주는 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신념체계는 가족이 공유하는 목표, 영성 그리고 가치관으로서 연구결과 영성 및 가치관은 큰 비중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가족이 공유하는 목표'는 가족레질리언스를 구성하는 요인으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었다. '가족이 공유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가족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족구성원간에 충분한 대화가 오가며 계획을 세우고, 자기 개발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여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가족관계적인 어려움을 견디며 그들 가족만의 미래와 비전을 견고히 하고 있었다.

둘째, 가족기능은 가족의 관계양상에 안정과 변화의 균형에 영향을 주는 가족행동으로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가족성원의 역할, 의사소통 등의 하위개념이 포함하는 개념으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역할기대에 대한 만족' 요인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먼저 '가족응집성'은 가족관계의 끈끈함과 단결됨으로 다문화가족이 경험하는 한국어구사능력의 부족,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부족, 아내가 타국에서 느끼는 외로움 등을 해소하기위해 모든 가족이 지지하고 가족의 유대감을 강화시켜주고 있었다. 다음으로 '가족적응성'은 사회기대에 맞춰가며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이 노력하는 과정으로서 현실적으로 아내가 한국문화에 일방적으로 적응해야하는 상황과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 문제로 인한 잦은 오해 및 갈등을 극복하기위해 구성원의 정보습득능력, 한국어습득노력 등을 보이며 가족의 레질리언스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역할기대에 대한 만족'은 각각의 가족구성원들이 기대하는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만족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다문화가족의 경우 남편이 아내의 역할을 대신해야하는 어려움을 경험한다. 그러나 서로의 기대를 함께 공유하며 맞춰가는 과정을 통해 각 가족원들의 욕구를 이해하고 이를 수행하는 과정은 이들 다문화가정의 레질리언스를 강화시켜줄 수 있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사회연계성은 다문화가족이 외부체계와의 끊임없는 접촉을 통해 사회적 지지 및 만족을 획득하는 개념으로서 다문화가족이 초기에 경험한 방황과 갈등을 통해 획득한 사회적응기를 결혼초기의 다문화가족들에게 전달함으로서 '사회활동을 통한 만족'이 레질리언스를 구성하는 요인으로서 도출되었다.

결론적으로 다문화 가족은 가족과 사회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무엇을 삶의 의미로 삼고, 그 의미를 풍성하게 만들어가기 위해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 가족이 한국 사회에서 적응을 촉진시키는 레질리언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다문화 가족이 한국 사회에 안정된 정착을 한다는 낙관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오히려 다문화 가족이 가진 충분한 잠재력에 집중하여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정의 위기, 사회의 위협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개발시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정책적, 학문적 측면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다문화 가족은 건강성과 레질리언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다문화 가족의 건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관련기관의 서비스 및 교육은 결혼이민자여성만을 대상으로 문화습득과 한국어교실에 치중되어 생존에 급급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이에 관련 기관 및 단체는 다문화 가족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가치 있는 자원으로 인식하여 그들이 주체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다문화 가족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는 미래사회에 대한 우려를 기반으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커다란 지원과 관심을 유발하였다. 그러나 이는 다문화 가족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체성을 갖고, 사회통합을 이루기보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으로서 끊임없이 지원해야하는 집단으로서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각인시켰다. 한국 사회에서 장기간 한국에 거주하며 결혼생활을 유지한 다문화 가족은 더 이상 일관되고 중복된 서비스와 항상 받기만하는 서비스의 수혜자로서 머무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양하고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다문화 가족의 정책 및 서비스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제안이 필요하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전달체계 및 서비스가 중복되어지지 않도록 서비스의 수혜대상의 분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다문화 가족의 잠재력 및 건강성을 간과하였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 사회에서의 건강한 적응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미 한국 사회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였고 발전된 사회문화를 위해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여야 한다면 이들의 문화적 배경을 심도 있게 탐색하여 새롭게 형성된 가족 내에서 발전시킨 건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연구방향을 설정하여 풍성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강유진(1999).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조 선족 여성의 결혼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61-80.

경상북도 여성정책개발원(2006). 국제결혼 가족 및 아동 실태조사.

구차순(2007).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고경화(200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국내외 북한이탈주민 : 지원사업의 문제와 개선방향.

교육인적자원부(2008). **다문화가족의 자녀 교육 실태**.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권복순(2000). 모자가족의 어머니와 자녀가 지각한 가족기능의 특성. **한국사회복지학, 40**, 5-37

권유경(2007). 결혼이민자 가정에서의 호혜적 기대의 일치와 불일치 연구 : 한국 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구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안자(2006). 가족레질리언스가 한부모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은실(2002). 지구화, 국민국가 그리고 여성의 섹슈얼리티. **여성학논집, 19**, 29-46

김지영(2006). 출산 후 여성의 경험과 레질리언스(Resilience)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 감리교신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현경(2005). 예방차원으로서 집단미술치료가 아동의 또래간 사회적지지, 친밀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의순(1990). 대학생 지각한 조부모와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재규(2005). **전라북도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서울: 전북발전연구원.

법무부(2007). 2007년 결혼이민자 지역별 체류 현황.

보건복지가족부(2008). www.mw.go.kr

서동인(1991).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와 심리적 친밀성: 친조

모와 외조모의 비교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성지혜(1996). 중국교포여성과 한국남성간의 결혼 연구.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손민규(2007). 결혼이민자들의 사회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 시흥, 안산지역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송성진(2007).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사회화 과정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 다문화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신경림(1997). 도서지역 성인 여성의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9**(1), 124-135.
안은미(2007). 농어촌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안혜옥(2007). 국제결혼 여성 가정에 대한 연구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안희순(1987). 맞벌이 부부의 역할수행과 역할기대에 관한 연구 : 서울시내 탁아소를 이용하는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오성배(2005). 코시안(Kosian)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 32**(3). 61-83.
유영주(1993). 가정학에서의 가족연구 접근방법. **가족학 논집, 5**, 189-200.
유영주(2001). **건강가족연구**. 서울: 교문사.
윤영주(2001). 한국체류 중국동포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규삼(1999). 국제결혼가정의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금연(2003). 국내 국제결혼과 그 이해-실태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국제결혼과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제안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이선애(2004). 만성질환아동가족의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윤애(2004). **전북지역 외국인여성 정착지원방안**. 서울: 전북여성발전연구원.
이정희(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과 이혼위기에 대한 사례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혜정(2007). 외국인 며느리를 두고 있는 농촌노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임안나(2005). 한국 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의 가족관계와 초국가적 연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정민자(1991). 가족연구에 대한 체계론적 접근. **사회과학논집. 1**(1). 117-136.
최연실, 조성경(2006). 결혼초기 기혼남녀의 원가족특성과 갈등 및 상담요구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 24**(5), 17-35.
최현미(2008).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과제**. 서울: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충남여성정책개발원(2003). 충남거주 외국인 여성을 위한 정책모색 워크샵 자료집.
통계청(2008). 2007년 혼인 · 이혼 통계. http://www.nso.go.kr/
한국여성개발원(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행정자치부(2008). **전국결혼이민자 현황**. 서울: 행정자치부.
홍기혜(2000).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홍영숙(2007). 다문화가정이 봉착하는 자녀교육 문제와 시사점. 광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Barnard, C. P.(1994). Resilience : A shift in our perception?.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2*, 35~144.
Hawley, D., & Dehaan, L.(1996). Toward a definition of family resilience : Intergrating life-span and family perspectives. *Family process, 35*(2), 283~298.
Luthar, S. S., Cicchetti, D., & Becker, B.(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 543~562.
McCubbin, H, L., & McCubbin, M. A.(1988). Typologies of resilient family : Emerging roles of social class and ethnicity. *Family Relation, 37*, 247~254.
McCubbin, H. I., McCubbin., M. A., & Tompson, A. I.(1993). *Resiliency in family : The role of family schema and appraisal in family adaptation to crises*, 153~177.
Silliman, B.(1994). *Rationale for resilient families concept paper*. National Network for Family Resiliency.
Singer, G. H. S., & Powers, L. E.(1993). *Families, Disability and Empowerment. Paul H*. Brookes Publishing Co.
Stinnett, N., & DeFrain, J.(1985). *Secret of Strong families*.

Boston: Little, Brown.

Turner, S. G.(2001). Resilience and Social Work Practice : Three Case Studies. *Families in Society, 82*, 441~448.

Waish, F.(2002). *Family Resilience*. 양옥경, 김미옥, 최명민(공역). 서울: 나남. (1998년도 원저발간)

Walsh, F., & Olson, D. H.(1989). *Utility of The Circumplex Model : systemic assessment and treatment of families*, New York : Haworth Press.

Walsh, F.(1998). Editorial : The Resilience of The Field of Family Therap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4*, 269~271.

접 수 일 : 2009년 4월 30일
심사시작일 : 2009년 5월 4일
게재확정일 : 2009년 6월 3일